

‘넘사벽’ 한국 보치아...패럴림픽 10회 연속 금메달



‘보치아 간판’ 정호원, BC3 남자 개인 4연패 달성 광주 투포환 정지승·양궁 김옥금 메달 획득 실패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정호원(강원장애인체육회)이 한국 보치아 종목 10연패의 위업을 이뤘다.

‘보치아 간판’ 정호원은 3일 파리 사우스 아레나 1에서 치러진 보치아 BC3 남자 개인 결승전에서 대니얼 미셸(호주)을 상대로 4엔드 합산 점수 5-2(3-0 1-0 0-2 1-0) 승을 거뒀다.

이날 경기를 마치고 우승을 확정된 정호원은 경기용 안대를 벗어 던지며 포효했다.

정호원은 지난 1일 준결승에서 다미안 이스크르츠키(폴란드)를 4엔드 합산 점수 6-1(1-0 4-0 0-1 1-0)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사격 조정두(P1 남자 10m 공기권총 SH1)·박진호(R1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 SH1)에 이어 한국 세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었다.

1998년 보치아를 시작한 정호원은 2002년 부산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패럴림픽에 처음 도전한 2008년 베이징 대회부터 2012 런던·2016 리우데자네이루·2020 도쿄, 5번째 출전한 이번 대회까지 통산 7개(금4·은2·동1)의 메달을 거머쥐었다.

참가한 모든 패럴림픽에서 입상을 놓친 적 없는 그는 광주 보치아 강선희(한전KPS)와 호흡을 맞춰 썬퍼 종목에서 다시 한번 금 사냥에 나선다.

한편 한국 패럴림픽 사상 처음으로 투포환 종목에 출전한 광주 장애인양궁연맹 정지승(삼호개발)은 5위로 첫 대회를 마감했다.

정지승은 지난 2일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F 41 남자 포환던지기 결선에서 10m72를 기록, 5위로 경기를 마쳤다.

이번 경기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보비르존 오미노프가 14m32로 1위, 카탈 니코(독일)와 황준(중국)이 13m74·11m66으로 2·3위에 올랐다.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왜소 장애의 정지승은 목표했던 개인 최고기록 11m07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패럴림픽 무대에서 한국 육상의 입지를 넓혔다.

세 번째 패럴림픽에 나선 광주 양궁 김옥금(광주시청)은 여자 단식(W1) 4위, 혼성 4위에 그치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김옥금은 지난 6월 출전한 ‘2024 장애인 양궁 유럽안 컵’ W1 혼성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합작했던 박홍조(서울시청)와 다시 호흡을 맞췄다.

김옥금-박홍조 조는 지난 2일 파리 앵발리드에서 열린 컴파운드 W1 혼성전 동메달결정전에서 다일로 다메노-파울로 도메네(이탈리아)조에 132-134패 당했다.

4강에서 쉐민위-장텐신(중국)조에 139-145로 졌던 이들 조는 대회 마지막 경기인 동메달 결정전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김옥금은 앞선 여자 단식 W1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테레사 브랜트르바(체코)에 122-127로 패했다.

한국 선수단 최고령인 김옥금은 출국 전 이번 대회를 본인의 마지막 패럴림픽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경기 결과에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정호원(가운데)이 3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아레나1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남자 개인전(스포츠등급 BC3) 결승에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페퍼스, 女배구 신인드래프트서 리베로 오선에 품었다

미들블로커 민지민 수련선수 지명...한국도로공사 최대어 김다운 선점

한국 여자배구 신인들의 프로 무대 보급자리가 결정됐다. 3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2024-2025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 신인 선수 드래프트가 진행됐다.

AI 페퍼스는 리베로 오선에(남성여고·157cm)를 호명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45명과 대학교 재학생 1명 등 총 46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드래프트 행사는 최종 순위에 따른 차등 확률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시즌 성적 역순으로 7위 페퍼스(35개), 6위 한국도로공사(30개), 5위 IBK기업은행(25개), 4위 GS칼텍스(20개), 3위 정광장(15개), 2위 흥국생명(10개), 1위 현대건설(5개) 순으로 구슬을 추첨기에 넣었다.

하지만 페퍼스는 지난 2022년 12월 GS칼텍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리베로 오지영을 데려오면서 이번 시즌 1라운드 지명권을 내줬다. GS칼텍스는 총 43개의 구슬을 확보한 셈이었다.

이에 따라 2라운드 5순위로 첫 선발을 하게 된 페퍼스는 남성여고 오선예의 이름을 불렀다.

페퍼스는 3라운드 3순위 지명권은 행사하지 않았으며 아포짓스파이커 겸 미들블로커 민지민(정수고·181.5cm)을 수련선수로 지명하며 드래프트를 마쳤다.

1순위 지명권을 얻은 한국도로공사는 신인드래프트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 세터 김다운(목포여상·178.2cm)을 선점했다.

2순위 GS칼텍스는 페퍼스의 3순위 지명권까지 대해 미들블로커 최유림(근영여고·190cm)과 아

웃사이드허터 이주아(목포여상·182cm)의 이름을 불렀다.

4순위 현대건설은 미들블로커 강서우(일신여상·184cm)를, 5순위 흥국생명은 남성여고 이채민(아포짓, 아웃사이드허터, 미들블로커·183.9cm)을 지명했다.

6순위 IBK기업은행은 세터 최연진(선명여고·178cm)을, 7순위 정광장은 아웃사이드허터 전다빈(중앙여고·175.3cm)을 영입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수련선수 3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선발됐다.

각 구단에 합류한 선수들은 1라운드(4500~5500만원), 2라운드(3500~4500만원), 3라운드(3000~3500만원), 4라운드(3000만원) 등 지명라운드에 따른 기본 연봉을 수령하게 되며, 수련선수는 2400만원을 받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한국, ‘바둑 삼국지’ 농심배 5연패 도전

4일 중국서 개막...신진서·신민준·박정환 등 출전

한국과 중국, 일본의 바둑 국가대표전인 농심배가 이번 주 막을 올린다.

제26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과 제2회 농심백산수배 세계바둑시니어최강전이 4일 중국 지린성 옌지에서 개막식을 갖고 열전에 들어간다.

바둑 최강국을 가리는 신라면배는 현지에서 5일부터 8일까지 1~4국을 펼치고, 시니어들이 출전하는 백산수배는 10일까지 1~6국을 치른다.

신라면배 5연패에 도전하는 한국은 ‘끝판왕’ 신진서 9단을 비롯해 국내 선발전을 통과한 신민준·김명훈·설현준 9단, 와일드카드를 받은 박정환 9단으로 대표팀을 꾸렸다.

한국과 우승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대회 최다인 7연승 기록 보유자 판팅위 9단을 선봉으로 리쉬안하오·커제·딩하오·셰얼하오 9단 등으로 최강팀을 구성했다.

일본은 현재 응씨배 결승에 올라 있는 이치리키 료 0단과 시바노 도라마루-이아마 유타·쉬자위안 9단, 히로세 유이치 7단이 출전한다.

신라면배는 옌지에서 1차전을 마친 뒤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부산에서 2차전을 갖고, 내년 2월 중국 상하이에서 최종 3차전을 개최해 우승국을 가린다.

백산수배에는 지난 대회 우승의 주역인 유창혁 9단을 포함해 조훈현·서능욱·김종수 9단이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중국은 네웨이펑·위빈·차오다위안·루이나이웨이 9단, 일본은 다케미야 마사카·요다 노리모토·고바야시 고이치·왕밍완 9단이 시니어최강전 우승에 도전한다.

두 번에 나눠 열리는 백산수배는 내년 2월 농심신라면배와 함께 최종 라운드를 벌인다.

신라면배 우승상금은 5억 원이다. 3연승 하면 1000만원의 연승상금을 준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다. 백산수배 우승 상금은 1억8000만원이고, 3연승 시 500만원을 지급한다.

제한 시간은 각자 40분에 초읽기 1분 1회다. /연합뉴스

“체육시설 직접 둘러보고 동계 전지훈련지 결정하세요”

전남도, 팸투어 참가자 모집 스포츠시설·인센티브 등 소개

전남도가 ‘2024 전국 전지훈련팀 관계자 초청 설명회 및 팸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설명회 및 팸투어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전남도내 일원에서 열린다.

타 사·도의 학교 운동부, 실업 및 프로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타 사·도 전지훈련팀 관계자들에게 우수한 전남 체육 인프라와 전지훈련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전남에 소재한 스포츠시설과 전지훈련 지원 인센티브 등이 상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또 종목별로 사·군 체육시설 현장 방문을 통해 전남 체육시설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전지훈련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국군체육부대 보성전지훈련 모습. <전남도체육회 제공>

U-20 여자축구, 1차전 패배 승리로 달린다

4일 베네수엘라와 경기

2024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 첫 경기에서 나이지리아에 패한 우리나라 대표팀의 박윤정 감독은 다음 경기에선 아쉬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 감독은 3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어제 우리 팀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준비한 부분, 선수들이 잘해왔던 부분이 결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고 말했다.

박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전날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U-20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나이지리아에 0-1로 졌다.

35세로 역대 FIFA 대회에 참가한 한국 감독 중 최연소인 박 감독은 사령탑으로 나선 월드컵 첫 경기에서 패배의 쓴맛을 봤다.

대표팀은 이제 5일 베네수엘라와의 2차전, 8일

독일과의 3차전을 준비한다.

각 조 1·2위, 그리고 조 3위 6개국 중 상위 4개국이 나서는 16강 진출을 위해선 우선 베네수엘라를 잡아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1차전에서 독일에 2-5로 대패했다.

독일-베네수엘라 경기를 관전했다는 박 감독은 “우리가 1차전에서 보여주지 못한 부분, 원래 하던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선수들도 어제 경기에 대한 아쉬움이 크고, 이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제 경기장에서 많은 분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했다. 응원 소리가 큰 힘이 됐는데, 경기 후 일정으로 감사 인사를 못 하고 들어와 죄송하다”면서 “다음 경기에도 힘을 주신다면 그때는 좋은 기분으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 피어오르다

일시 : 2024-08-16(금) ~ 2024-09-15(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9월)

일시 : 2024-09-01(일) ~ 2024-09-29(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9.16.(월)-17.(화) 오후 5시 한가위 특별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피어오르다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2024. 8. 16(금) ~ 9. 15(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